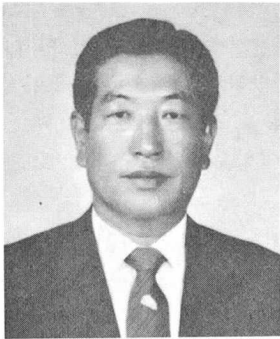


# 자치소방체제로의 전환에 주력



범택균  
(내무부 소방국장)

## 1. 88주요시책 회고

지구촌의 대축제와 민주화를 향한 격동이 엮갈린 88의 한해가 우리 역사에 큰 대목으로 기록되고 새로운 한 해가 더욱 탄탄하게 뻗어가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지난 한 해 소방의 문제를 되돌아보면, 규모의 증대여파로 밀어닥친 소방여건의 변화에 대해 현 주소를 파헤치고 제몫을 온전하게 찾기 위해 조사 분석하여 계획할 내용들에 골몰한 것과 올림픽 안전개최를 위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바친 값진 일들을 수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 화재발생은 전년대비 27.1%증가에 머무르고 그중 대형화재도 8건으로 최소화시켰고 무엇보다도 제21회 서울 올림픽대회 기간중 전국적으로 대형화재나 대회 관련시설에서의 사고가 전무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다. 소방역사상 대상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횡수를 늘려 시장, 호텔, 공장, 유흥음식점 등 위험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되는 3천7백11개소에 대한 분야별 합동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지적된 불량 7백개소중 19개소를 제외하고는 불안전요인을 제거시켰고, 정기 소방검사 대상물 5만3백82개소의 관리카드를 정비함으로써 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한 외에 국민에 대한 소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기본소방력의 기반확충을 위한 소방관서 38개소(소방서

3개서, 파출소 35개소)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이제 우리 소방은 4백56개 관서(소방서 89개서, 파출소 3백67개소)를 보유하고 1만을 초과하는 소방인력이 되었고, 장비면에서도 '소방장비 보강 5개년 계획'을 추진한 결과 소방차량 2천6백73대와 필수 개인장비 6천1백18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더욱이 소방의 기능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19구급업무에 구조업무를 추가하여 전국 7개 주요도시에 119구조대를 창설, 인명구조차 및 장비를 갖추고 전담요원 1백14명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재난으로부터의 인명구조 기능을 개시하여 지난 수개월 사이에 1천여명의 생명을 건져내게 하였음은 소방업무의 큰 발전임과 동시에 민주 봉사소방의 제길을 찾아 나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8년도의 큰 대목은 숫자적 활동적 기록에서보다는 틀을 새로 잡는 일에 열중하였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지방관리의 이원화 체제로부터 지방화 체제로 옮겨가는데 대한 체계의 구축과 민주화시대에 맞는 자율범위의 조정과 신장 그리고 규모화 대량화에 대응한 대중 경방체제의 확보를 위해 소방분야전반의 법규와 제도들에 관하여 분석 검토하였던 것이다.

그중 법규적 정비작업은 1차적으로 시설기준 규칙 19개 조항을 국민부담의 경감내용으로 검토 완료하고 소방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검토 중이고 지방조직에 대하여는 종래의 소방력 기준을 대폭 수정 현실화하면서 인구 밀집지 중심으로 소요관서, 인력, 장비를 조정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에서 담당해오던 군지역에 대하여 소방소를 두어 소방민원과 예방, 진화업무를 관장하게 하는 중규모 소방관서제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근무여건의 개선과 자주경방조직의 확대운영 및 민생소방에의 업무개발을 통해 '고마운 소방관'으로서의 자세와 위치를 확립할 기획작업들을 거의 마무리한 것이다. 이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오류들을 계속 검토하여 89년의 밝은 아침에 내놓고자 한다.

## 2. 89년도 주요 소방시책

올해는 국내적으로 지난 날의 불안하고 암울했던 터널을 지나 민주화합의 새시대를 향해 새로운 시대정신의 구현과 민주질서를과

감하게 개혁하고 확립해 나가야 할 때이고, 정치·행정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이 갈망해오던 지방자치 실시하는데 따른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하는 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방의 행정체제는 자치 소방역량을 확충, 모든 자치단체가 소방의 문제를 맡아서 처리하는 체제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기에 아직 소방서를 갖지 못한 군지역에 최소한의 소방기능을 확보케 하고 자력소방의 역량을 갖게 하는 장치가 우선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지역단위별 조직보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잠정적으로 기존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소방력을 인접관서 설치 지역에서 응원받게하는 체제도 갖추는 한편 화재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서 계몽하고 필요한 감시를 할 통·반 단위의

민간조직도 새로이 발족시켜야겠다. 더욱이 민주화시대의 소방은 소방시설을 강요하는 소방체제에서 민주소방·민생소방, 즉 봉사소방의 영역을 개발 수행하는 시대적 욕구를 강하게 부하받고 있기에 89년의 시책은 자치소방체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완벽한 태세구축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다져가고자 한다.

### (1) 자치대비 소방체제 보강

자치대비 소방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군단위의 소방기능을 보강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군지역소재 소방관과 출소(23개소)를 소규모 소방서 개념의 '소방소'로 확대 개편하여 민원과 진압업무를 동시 수용하도록 연차계획으로 증설하되, 잠정적으로는 군의 소방인력을 현재 1명에서 2명씩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진압조직으로서의 의



용소방대 소방력을 최저 차량 2대, 소방관 4명을 기준으로 삼아 1단계 조치로 군청소재지와 과대읍 16개소를 우선 보강케 하며, 대형화재시나 대대적인 시설점검 등 소방수요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간 소방응원체제를 갖추어 지원하는 방법을 활용케 할 것이다.

아울러 오산시 등 89년도에 신설되는 소방서를 설치하는 문제는 5개소 개서를 목표로 청사, 장비, 인력의 조속 확보를 추진 하되 개서이전에는 기존의 파출소보강 등을 통해 소방안전에 차질없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 (2) 기본소방력의 확보

기본소방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소방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즉, 관서는 도시 등급별로 차등 적용하여 감조정하여 군지역의 소방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장비는 소방대상별 차량기준을 감축시키고 통신장비 기준을 신설하며 의용소방대 장비기준을 조정해 나갈 것이다. 또 소방인력은 진압, 예방, 통신인력을 전문화시키고 차량별 소요 인력을 감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역별 소방여건 변화의 반영 및 군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력 기준 조정작업은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필수소방력의 확보에 있어서는 지역별 소방수요를 감안하여 보강 우선순위를 설정,

차량·개인장구·소화전 보강 및 전문인력 특수장비 운영요원, 구조대원 등) 확보를 추진하되 재정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연차별로 확보해 나갈 것이다.

## (3) 소방력 운용의 합리화

소방력 운용방향은 소방력 낭비요인의 제도적 보완 및 전문기술 개발과 효율적 인력관리에 둘 것이다. 지휘통제체제의 능률화를 위한 지령실 전산화와 지휘본부를 운영토록 함과 아울러 예방·진압업무의 구분운영, 개인별 전문기술 연마, 대기 근무시간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소방업무의 전문화에 주력하고, 소화전설비의 확대 및 전진압요원의 장비요원화를 통해 장비운용의 효율화를 기해나갈 것이다.

## (4) 대민 소방업무 개선

89년도 소방민원업무를 이제까지의 규제적 소방을 자율소방체제로, 관 주도 소방을 민 주도 체제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첫째, 대민규제의 완화이다.

우선 과다벌금·과다시설 규제 등을 완화시키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불요소화설비, 과다물량 규제 등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도록 89년 상반기안으로 소방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소방시설 성실관리자의 자율을 인정하여 소방시설 완비 대상에 대한 안전표찰제 도

입과 더불어 성실관리 시설주에 대한 소방검사를 면제시키는 제도를 검토해 나가 고자 한다.

둘째, 예방기능의 위임, 위탁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는 대형·특수시설 안전관리의 위탁, 소방시설 검사의 부분 위탁, 인·허가 업무의 점진적 위임 등이 되겠다.

셋째, 대민업무 전담제의 추진이다.

민원·시설검사요원을 부문별, 지역별로 전담지정하고, 민원 부서에 우수인력을 선발 배치하도록 하며 민원요원의 정예화 교육훈련을 실시, 대민업무의 최대봉사와 검사업무의 체계화를 도모해 갈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새해의 소방과제는 민주사회에 알맞는 체제로 탈바꿈하는 첫해로서의 내용과 체제를 짜임새있게 갖추어 가는데 있다.

이 해의 틀은 1만 소방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마의 위협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결의로서 이겨낼 것으로 믿고 여기에 희망을 거는 것이다. ☉